

8장 : 고전기 예술과 르네상스 예술

◆1교시 :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 비교

▲고딕 건축의 예

고딕 성당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13세기를 고딕시대라고 분류하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시민 계급이 등장하고 그들의 힘이 커지면서 종교도 민족성을 띠게 되고 건축 양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양천의식의 표현, 절대자인 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와 신도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건축적 특징으로는, 첨탑이 있죠. 보시면, 뿔족할 첨 자죠. 첨탑이 큰 특징을 이뤄요. 그리고 모든 게 하늘을 향해 뿔족뿔족하죠. 탑도 뿔족하고 창문도 로마네스크랑 비교해서 보시겠지만, 이것 첨형 아치라고 해요. 첨두형 또는 첨형 아치라고 해서, 아치 윗부분이 뿔족하죠. 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첨탑과 첨형 아치 혹은 첨두 아치가 큰 특징을 이루고 있고, 그 밖의 특징을 보면요. 고전기 건축이 방사선 형식과 대비돼서 장방형이라고 했죠. 옆으로 굉장히 길죠. 첨탑이 위로 솟고, 반복과 증식의 효과가 장방형 속에 잘 드러난다고 했죠.

이걸 보세요. 첨형, 첨두형 아치가 고딕 건축의 특징이죠. 아미앵 성당(프랑스의 고딕건축을 대표하는 종교건축물이며 샤르트르대성당·랭스대성당과 더불어 고딕 건축의 파르테논신전이라고 불린다)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첨형 아치가 어떤 건지.

첨형 아치와 첨탑이 큰 특징이면서 또 다른 특징은 장식적이라는 거죠. 장식이 많은 것은 유목민의 특징에 속하는 거죠. 장식적이고 섬세하고 복잡한 것이. 머릿속에 잘 넣어 보세요. 회화와 조각으로 가면 같은 분위기로 이어져요. 굉장히 복잡하고 장식적이고 섬세하고 세부 묘사에 강한 것이 건축에도 드러나는 거죠. 잘 눈여겨보세요. 이제 다른 건축 양식과 비교할 때 이것 떠올릴 수 있게요.

특히 이런 인물 장식이 큰 특징이에요. 고딕 성당의 첨형 아치와 첨탑들, 장식들. 이건 고딕 건축 외벽에 장식된 성상들이에요. 성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첨탑, 첨두 아치, 외양의 많은 조각과 장식들. 또 다른 특징은 스테인드글라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밝아지고 화려해졌죠. 햇빛이 들면 여러 가지 색깔이 스테인드글라스에 비쳐서 황홀하게 연출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은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황홀감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또 하나의 고딕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높은 고딕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설계적인 특징은 ‘플라잉 버틀레스(Flying buttress : 주벽(主壁)과 떨어진 독립된 벽으로 주벽의 횡압력을 아치 모양의 팔로 지탱한다)’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장치된 버팀벽이에요. 이것들이 힘을 외부로 뿜는 거죠. 그래서 크고 높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버팀벽 덕분에. 그래서 고딕 건축에는 다 버팀벽이 있

어요.

그러면서 내부에는 기둥도 가늘어지고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기둥이나 구조물이 받쳐줘서 힘을 바깥으로 버텨벽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냈기 때문에 내부는 크고 웅장하게 연출할 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밝아요. 창문이 많은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도, 특권층만의 교회에서 많은 일반 평민에게 열린 교회로써 작용한다는 거죠. 플라잉 버틀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그림인데, 참고하시고요.

이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굉장히 육중하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창문이란 문이 굉장히 적어요. 고딕 건축과 비교해보세요. 이들이 권력층, 특권층이 중심이 된 시대구나 하는 걸 건축 자체가 상징하는 거죠. 안정감 있죠. 첨형 아치가 아니라 둥근 아치죠. 이 아치의 뿌리는 로마에 있죠. 로마의 개선문을 보세요. 둥근 아치가 중세로 이어져서 로마네스크에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아치문이 계속 르네상스까지 이어져 큰 특징을 이뤄요.

이것도 역시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아미앵 성당이 켈른 성당의 고딕 성당과 비교해보세요. 뭔가 비슷한데 첨탑이 아니죠. 쌍 탑인 건 똑같은데. 그리고 큰 문과 양쪽 두 개 세 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는데, 이걸 첨형 아치가 아닌 그냥 아치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단순하고 심플하고 안정돼 있으면서, 창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돔을 보세요. 아치형 창문도.

이것도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이죠. 창문도 적고. 이것도 역시 로마네스크 양식. 보세요.

아까 고딕 건축의 안은 어땠어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굉장히 많았죠. 플라잉 버틀레스 덕분에 외벽에 설치된 버텨벽 때문에 안 공간이 크게 확보됐죠. 밝고 넓고. 반면 로마네스크는 버텨벽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기둥이 온전히 힘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도 크고 내부는 좁고 훨씬 어둡고, 창문도 적기 때문에.

내부를 보세요. 기둥이 굉장히 크죠. 반면, 고딕으로 가면 내부 공간이 많이 확보되면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많은 창으로 훨씬 밝아지고 기둥들은 가늘어지고요. 힘을 다 외부로 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밝고 화려하면서 넓고 기둥은 가늘어지는.

▲르네상스 건축의 예

르네상스 건축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요. 이게 바로 그리스 시대에 기하학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비례, 비율이죠. 이것에 의존했고 이것이 바로 그림이나 조각뿐 아니라 건축에도 사용되는 거죠. 고대 조형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건축 비례원리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굉장히 기하학인 조화와 비례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정적이죠. 안정감 있고. 그리고 알베르티는 건축의 기본으로 정사각형, 육면체, 원, 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건축물의 평면도예요. 방사선, 대칭적 제한성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중심을 두고 대칭을 이루죠.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내요. 원형도 있고 정방형, 육면체, 별형 등 여러 가지.

격자 모양, 방사 모양, 별 모양이 르네상스 건축의 큰 특징을 이루는 거죠. 르네상스의 대표적 건물을 보면, 그리스 신전에서 박공(楹栱)과 열주(列柱)식 기둥을 볼 수 있죠. 그걸 그대로 따오고, 아치는 그리스 로마 양식을 그대로 따오죠. 안정감 있고, 대칭적인 그리스 신전 형식을 따온 거죠.

이건 컴퓨터 그래픽화한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 르네상스 건축에 적용되죠. 이건 콜로세움이죠. 로마시대 원형경기장.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치형 문. 로마시대 개선문의 공법들. 그리고 이건 로마 시대 판테온이라고 해서 만신전이라고 해요. 여러 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이건 로마시대 그런 그림이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에 로마의 것을 고증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창문이 볼트, 둥근 창문. 이게 바로 바깥에서 돔형 지붕으로 나타나겠죠.

이건 초기 ‘바실리카’라고 해서 교회의 전신이죠. 로마시대에 큰 집회소, 회당으로 쓰던 곳인데 이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많은 발전과 변화하는 거죠. 기본형은 바실리카에서 시작되고요.

내부를 보세요. 궁류형 천장과 아치문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면서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내부. 굉장히 비례와 조화. 그들이 가진 기하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수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안정감 있는 형태를 짓게 되는 게 르네상스 건축의 큰 특징이에요.

같은 성당의 내부인데, 아까 본 고딕양식이랑 큰 차이가 있죠. 상당히 조화, 비례,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고 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돔.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한 거죠. 돔형 천정이 르네상스 건축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열린 중앙박물관 건물도 르네상스 양식이죠. 돔형 지붕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텔 피오레 성당, 이게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이죠. 돔형 지붕과 아치형 돔과 창문 그리고 열주식 기둥. 그리스 신전을 보는 듯한 박공. 고전기 양식이 그대로 르네상스 건축에서 부활된 거예요.

▲제한으로서의 대칭성과 반복으로서의 역량

‘제한으로서의 대칭’이라고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게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원형 건물.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에요. 장방형의. 이게 연결되면 무한히 증식하고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겠죠. 이것도 고딕 양식의 아미앵 성당. 확실히 다르죠. 르네상스 건축 평면도와. 장방형의 외관이 나오겠죠. 끝없이 뻗어가고 반복되고 증

식되는 느낌.

내부도, 반복으로서의 역량을 한번 음미해보세요. 아까 르네상스 성당의 내부가 어땠어요? 굉장히 안정감 있었죠. 정적이고. 고딕 성당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동적이고. 반복과 증식이 계속 되는. 천정과 문들도. 장방형이니까 가능한 걸 거예요. 제한으로서의 대칭성과 반복으로서의 역량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을 비교해서 봤고요.

◆2교시 : 남유럽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 비교

▲유목민 예술의 예

이제 유목민 예술의 영향이 중세와 근세인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까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 강의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을 텐데. 건축에서의 중세 고딕을 고전기 건축과 비교해봤죠. 이제는 회화와 조각 그리고 그 밖의 공예, 장식에 대한 유목적 예술과 정주적 예술의 차이를 보겠는데요, 일단 유목민 의상인 의장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를 몸에 걸치고 있는. 그것을 먼저 보기로 합시다.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게 몽골족인데요. 유목민들이 왜 섬세하고 세부적이고 장식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를 훑어 내려오면서도 그들의 생활, 문화와 많이 연관된다는 거죠. 이동하는 그들의 습성에 의해서 그들의 재산이기도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예술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몸에 다 걸칠 수 있거나 소규모로 이동 가능한 게 그들 예술품의 주종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의상이 화려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몸에 많은 걸 지녀야 하는 그들의 특징. 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복식과 예술이 얼마나 닮아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스키타이 유물 중 하나인데, 헌배죠. 굉장히 묘사가 섬세하고 복잡하고 장식적인 습성이 고대 기원전부터 공예품 속에 예술의욕, 리글이 말하고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예술의욕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바이킹족. 중세로 내려오면서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바이킹 얘기를 잠시 했었죠. 그들이 주로 해상에서 많이 활동했죠. 지금의 덴마크 지역이 바이킹족이 정착했죠. 그들의 운송 수단이자 생활수단이었던 배. 그 배의 장신구예요. 바이킹 배 기억나세요? 가늘고 긴 배 앞부분의 장신구인데. 목조죠. 굉장히 섬세하죠 장식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 아주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유목민들의 특징.

이건 켈트인의 투구예요. 투구라고 하면 맨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한없이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정착하고 시대가 지났을 때, 스페인 쪽의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

기에서 이들의 장식적이고 섬세하고 복잡한 표현 역량이 그대로 건축에 옮겨 내려오는 거죠. 정착했는데도 그들의 예술적 특징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세로 내려오면서, 고대 유목민이 가지고 있던 장식적이고 섬세한 공예적 기법이 남아있는 거죠. 촛대인데,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장식과 조각이 돼 있죠.

중세의 필사본을 보면요. 이게 성서의 한 페이지예요. 성서 뚜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보시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너무나 복잡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성서 필사본의 한 페이지인데, 상징적인 것들 담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십자가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특성. 이것도 보시면, 이걸 어떻게 다 그릴 수 있었을까?

조그만 귀걸이나 반지 하나에도 아주 섬세하게 장식을 넣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아, 이미 정착한 유목민의 후예들도 그들의 예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성 요한을 표현한 예술인데, 장식적이라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꼬불꼬불한 선이나 옷 무늬, 의미를 알 수 없는 장식들. 어디 한 군데 빠끔하게 내버려두는 게 없을 정도로. 나중에 비잔틴 성화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도 로마네스크, 게르만 민족의 예술이죠. 성모자상인데, 옷 무늬도 굉장히 다양하고 뒤에도 그냥 남겨두는 법이 없어요. 필사본 성서 뚜껑 페이지와도 내용은 달라고 뭔가 닮아있죠. 빈틈없이 조각돼 있던, 부조돼 있던 투구나 바이킹의 배 장식, 무늬들 빈틈없이 새겨놓은 그들의 특징이 성모자상에도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들의 장식적 요소들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달라지지만.

▲비잔틴 미술

제가 아까 비잔틴과 로마네스크로 나눠서 설명 드렸는데, 비잔틴 예술이 동로마 쪽이죠. 성모자상이에요. 모자이크라는 기법이 비잔틴 성화의 큰 특징인데, 같은 성모자상인데도 아까 로마네스크 성모자상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가.

중세는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이건 비잔틴이건 로마네스크 할 것 없이, 성서의 내용 전달, 교리 전파인 종교적 목적이 우선되고, 미술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미학적인 특징은 배제되죠. 이전의 그리스 로마가 가진 미학적 특징은 배제되고 단순화 시키면서 평면화 시켜서 간결하게 종교의 내용,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인체나 다른 배경, 자연에 대한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체의 미가 아니라 성서에 있다. 종교에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고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되기를 원했지,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같은 중세의 그림인데도, 로마네스크는 같은 성화를 그려도 뭔가 그들의 장식적 특징이 배어 있다는 거죠. 비잔틴은 다르죠.

이것도 초기 비잔틴의 모자이크인데, 단순 명료하죠. 배경도 단색으로 처리하고, 아마 로마네스크 게르만 민족의 성화였다면, 여기에 다른 뭔가를 잔뜩 표현했을 거예요. 옷에도 무늬를 넣고, 하지만 비잔틴 그림은 심플하게 표현됐죠. 보시면,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빵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몇백 명을 먹여 살렸다는 신약성경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중세에는 종교적 목적이 뚜렷했죠. 여기서 로마네스크 유목민 예술과 정주민 예술의 특징이 어딘가에 중점을 두고 봐야겠죠.

이건 비잔틴 교회예요. 로마시대의 건축을 많이 이어받았죠. 아치라든가 돔, 그리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의 모습. 이것도 비잔틴 시대의 건축이구요.

▲북유럽과 남유럽 르네상스 예술 비교

그리고 르네상스로 들어가면서, 북유럽과 남유럽을 비교해서 볼 텐데, 이건 북유럽 르네상스 건축이에요. 북유럽 사람들은 르네상스 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세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르만족은 자기들의 전통이거든요. 중세의 고딕식 건축이라는 것은 자기 전통이에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정신을 실현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신을 함께 이어가죠. 그래서 그들의 건축에는 고딕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죠. 첨탑 형태가 남아있든가 첨형 아치가 있든가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장식적인 부분들.

이것도 르네상스 시대 북유럽의 건축이에요. 아치 공법이 도입되고 그리스 시대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기둥의 코린트 양식(알렉산더 제국 건설과 함께 등장한 헬레니즘 미술의 후기 그리스 건축미술 양식)의 기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장식적이고 복잡하고 첨탑을 뜻하는 뾰족한 장식도 굉장히 많죠. 북유럽 르네상스 건축에는 고딕적 요소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의 북유럽 건축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남유럽 건축은 돔과 안정감 있고 단순 명료해 보이는 고전 건축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죠. 그래서 남유럽 건축과 북유럽 건축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르네상스지만, 이것도 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건축의 외향입니다.

▲북유럽과 남유럽 르네상스의 조각품

그런가 하면, 조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은, 아까 중세의 조각 보셨죠? 특히 고딕 시대에 교회 건물 앞에 장식했던 밋밋하고 원통형 인체, 인체의 비례나 해부학적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체 모습이 부활하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해부학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사실성을 크게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도나텔로의 조각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부활한 거죠. 이걸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죽어가는 노예>죠. 같은 시기의 <다비드 상>. 같은 시기 북유럽 조각을 비교해보세요.

고딕 시대에 비하면 사실성을 많이 획득했는데도, 남유럽 이탈리아 조각가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장식적이라는 거죠. 건축에서 보여줬던 복잡함, 섬세함, 세부 묘사, 장식적인 면이 조각에도 반영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올한올과, 섬세한 얼굴, 근육.

그리고 섬세함, 세부묘사를 그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적합한 장르가 판화죠. 그중에서도 동판화예요. 뾰족한 철선으로 동판을 긁는 거죠. 세부묘사가 한없이 가능한. 그러면서 아주 섬세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재현적인 그림이죠. 구상이면서도 남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러가 그린 북유럽 그림이죠. 이게 너무 사실적이어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마리아와 남편의 가족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한, 북유럽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복잡한 얘기를 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림에서 사실적인 내용이 많이 표현되죠.

이건 뒤러의 <아담과 이브>인데요, 이것 역시 동판화입니다. 동판화야 말로, 들뢰즈/가타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았듯이, 선 하나 하나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반복과 증식을 통해서 질료들의 접속과 배치를 통해 형식이 구축돼 가는 표현적, 질료적 계열의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동판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긁어가면서 이런 사실성이 획득돼 가는 거죠. 르네상스 북유럽 화가 뒤러의 동판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럽 쪽은 해부학적인 정확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또 다른 형식적 통일성을 통해서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아까 스케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입니다. 오래돼서 낡은 그림이지만, 뒤러의 사실성 획득과 남유럽 다빈치의 사실성 획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습작이죠. 해부학적인 연구들. 이걸 <천지창조>에 아담과 하느님이죠. 아담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성을 획득

하고 있죠. 남유럽 회화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같은 시기, 세 명의 거장 중 하나의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이죠. 고전 그리스의 이상을 가장 제대로 반영한 화가로 라파엘로로 들고 있어요. 단순미, 조화미, 균형, 균제 등을 가장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화가죠. 보시면, 같은 시기의 성모자상인데 ‘슈테판 로흐너’라고 북유럽 화가입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장식적이죠. 뭐가 와글와글해요. 질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밑에 풀들. 비교해보세요 한번. 남유럽 화가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북유럽 화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것도 북유럽 르네상스의 화가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그들의 유목적 피가 여기에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클로즈업해서 보면 털 한올 한올이 표현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유럽 회화의 큰 특징이죠. 섬세함과 정교함.

아까 나왔던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이들이 추구한 조화, 균형, 균제, 비례. 그들의 건축과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형식적 통일성을 그림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조화를 중시했는가를 볼 수 있죠.

반면에, 같은 성화인데도 북유럽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조화, 통일성, 균제미, 균형미보다는 한 칸 한 칸 병렬적으로 놓고 장식적으로 그렸죠. 섬세하게.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중심으로 부터 나누어지는 제한적 대칭성이 아닌, 반복적 요소들, 장식적 요소들 그리고 어떤 질감의 표현의 유목적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각, 건축, 회화 그 밖의 장식까지 살펴봤어요. 이 마지막 그림은 북유럽 르네상스 그림인데.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원근감과 주변과 중심과의 조화, 비례가 아닌 굉장히 나열적이고 병렬적이죠. 장식적이고 표현적이고. 가까이 보면 나뭇잎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유화의 기법으로 덧칠과 덧칠, 표현과 표현을 더하면서 나름의 사실성이 구축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